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지원사업 예술로 기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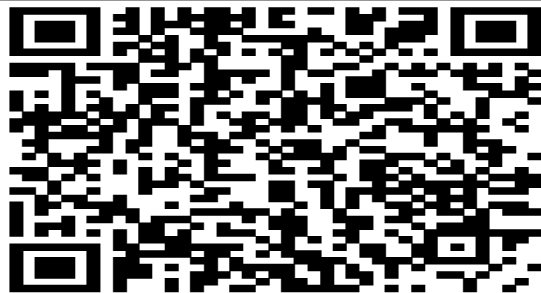
문화공간 비수기

2022. 05월 ~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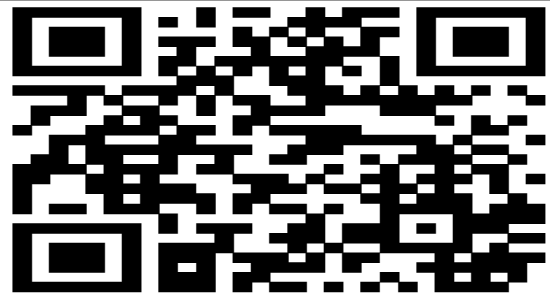
김성은, 김형용, 반디, 이상, 여유, 황요하

비수기 연구소 X 강정평화상단

문화공간 비수기란?



<http://www.facebook.com/spacebisugi>



<http://www.instagram.com/spacebisugi>

<문화공간 비수기>는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의 비수기 6개월 동안 비워진 감귤 선과장을 서귀포 지역 대안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에 결성된 비수기 연구소는 해당 년도에 공간리서치작업, 강정마을 예술행동주의 연구 작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와 부분 사이] 라는 주제로 독립예술영화 공동체상영회, 전시, 워크숍, 강정마을 예술행동주의 보고서 상설전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모두를 위한 비수기 축제] 라는 주제로 독립예술영화 공동체 상영회, 낭독극 공연, 전시, 시민참여 워크숍, 축제, 디제잉 파티 등을 진행하며 '비수기'라는 협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시도했고, 소규모이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의 축제형식을 실험하였습니다.

- 참여예술가 (비수기 연구소)

김성은

김그레이스나이스김치볶음밥, 그레이스나이스, 김그레있어, 김성은 등으로 불립니다. 강정마을과 인연이 닿아 제주와 베를린을 몇 년간 오가다 2019년 제주도로 이주한 뒤 활동가와 영화감독이라는 정체성 사이를 즐겁게 횡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강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런 저런 일을 도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메라를 매개로 관계를 맺는 것, 공동의 기억을 기록하고 감각하는 연대의 장으로서의 영화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또는 강정에서 퀴어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에 대해 자주 고민합니다. 그 시각이 작업 뿐만 아니라 일상의 만남에도 잘 녹아들길 희망합니다. <http://seunkim.com/>

김형용

연극연출가 또는 목공예가. 평면의 소설이 입체화 되어 공연이 되고 숲속의 나무토막이 수저가 되듯이. 무언가가 쓸모 있게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디

공연, 전시 기획자.

이상

거리예술·공공공간 예술/다원예술 공연작업을 하는 연출가이자 창작자다. 파고, 싸고, 덮고, 덮고 있다. <http://e-sang.org>

여유

싱어송라이터.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의 멤버이다.

황요하

다이빙과 촬영하는 예술가

* 올 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지원사업 기준으로는 강정평화상단(기업) X 비수기 연구소(예술가) 의 협업 구조 속에 김성은, 김형용, 이상, 황요하 4인이 비수기 연구소의 멤버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 기준을 벗어나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는 반디, 여유 2인의 예술가가 추가로 비수기 연구소의 멤버로서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담 디자이너로는 지혜와 함께 협업했습니다.

- 강정평화상단



강정평화상단

강 정 평 화 상 단 협 동 조 합

강정평화상단은 강정과 제주의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의 직거래로 판매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환경과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제주의 자연으로 키우고 재배한 선물로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강정에서 벌어진 해군기지 불법공사와 국가폭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강정평화상단의 모든 수익금은 강정마을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만드는 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현재는 1)지역주민의 소득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무너진 공동체 회복 3)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민의 예술 문화 콘텐츠 제공 관련 사업에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savejeju.net/>

주재훈

본 프로젝트에서 비수기 연구소와 협업한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자, 목수이며, 해변에서 주운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비치 코밍 기반 작업 예술가이다.

<http://oujuoo.wordpress.com>

2022 문화공간 비수기 활동내용



5월	- [협력] 영화상영회 1회 진행
6월	- [협력] 세계병역거부자의날 기념행사 1회 진행 - [자체] 커뮤니티 시네마 <비수기 영화관> 1회차 진행 - [협력] 전시 <불청객 uninvited> 22일 간 진행
7월	- [협력] 커뮤니티 시네마 <봄바람 상영회> 1회차 진행 - [자체] 커뮤니티 시네마 <비수기 영화관> 2회차 진행 - [자체] 입체낭독공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회차 진행 - [협력] 전시 <내 서식지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거야> 15일 간 진행
8월	- [협력] 영화상영회 1회 진행 - [협력] 파티 1회 진행
9월	- [자체] 자작곡 만들기 워크숍 4회차 진행 - [자체] 입체낭독공연 <그리움을 위하여> 1회차 진행
10월	- [자체] 비수기 축제 1회차 진행 - [자체] 커뮤니티 시네마 <비수기 영화관> 3, 4회차 진행 - [자체] 자작곡 만들기 워크숍 결과발표 공연 1회차 진행 * 비수기 영화관 3회차와 자작곡 만들기 워크숍 결과발표 공연은 모두 비수기 축제 안에서 진행됨

- 비수기 영화관

- 재춘 언니
- 사상
- 작은새와 돼지씨 (in 비수기 축제)
- 섬이 없는 지도

- 입체낭독극 공연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그리움을 위하여

- 자작곡 만들기 워크숍

- 워크숍
- 공연 (in 비수기 축제)

- 비수기 축제

- 비수기 장터
- 자작곡 공연
- 영화상영회

- 협력프로젝트

- 영화상영회 <Planet A>
- 세계병역거부자의날 기념행사 <여성병역거부 선언자들과 함께하는 병역거부 이야기>
 - 1부 영화상영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금기에 도전>
 - 2부 여성병역거부선언 이야기
- 흑표범 개인전 <불청객 uninvited>
 - '스틸, 감정'
 - '서울에서 오신 예술가분들'
 - '2199'
 - 부대프로그램 1 : 작가 X 기획자 온라인 토크
 - 부대프로그램 2 : 퍼포먼스 워크숍
- 봄바람 상영회 <여기, 우리가 있다>
- 김수정 개인전 <내 서식지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거야>
- 영화상영회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 디제잉 파티

:

[사진 6 ; 비수기 영화관 1회차 웹자보]

[사진 7 ; 비수기 영화관 2회차 웹자보]

[사진 8 ; 비수기 영화관 4회차 웹자보]

[사진 6]

[사진 7]

[사진 8]

:

예술영화관이 없는 제주 지역에서 보기 어려웠던 신작 독립예술영화들을 상영했다. ‘노동, 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에 걸맞는 영화를 선정하였고, 동시에 비수기 연구소 멤버인 그레이스가 연출한 영화까지 총 네 번의 상영을 늦봄에서 이른 가을에 걸쳐 진행했다.

재활용한 자동차 시트를 활용하여 감귤선과장과 제주 농촌 풍경 속 자연스러운 영화관의 분위기를 추구하고, 관객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

[사진9~12 ; 비수기 영화관 <재춘언니>진행사진]

:

[사진13~16 ; 비수기 영화관 <사상> 진행사진]

:

[사진17~18 ; 비수기 영화관 <작은 새와 돼지씨> 진행사진]

:

[사진19~20 ; 비수기 영화관 <섬이 없는 지도> 진행사진]

:

[사진 21 : 황만근 웹자보]

입체낭독공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공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입체낭독공연” 형식을 가집니다. 극단 놀땅, 극단 12언어 연극스튜디오, 극단 종이로 만든 배가 공동 참여하고, 극단 이루에서 제작한 2010년 선돌극장 공연 <배우가 읽어주는 소설>에서 처음 시도된 입체낭독공연은 배우의 낭독과 연기로 단편소설 한 작품 전체를 감상할 수 있는 참신한 형식의 무대입니다. 소설의 문장을 단순한 낭독으로 들려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식이면서, 소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각색해서 무대화하는 것과는 달리 소설 작품의 언어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작가와 독자, 혹은 작가와 관객 사이에서 배우들은 소설을 읽는 행위를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아가 극장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교감하는 공동체적 경험으로 바꾸어줄 것입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민서 안 망하고 백년을 살끼라."

"그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동서문학 2000년 겨울호에 발표한 성석제의 단편소설입니다. 2001년 이효석 문학상 수상했으며 농촌 마을에서 반푼이로 취급받는 가난하고 어리석은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약간의 과장과 골계를 섞어 재미있으면서도 슬프게 그려낸 작품으로, 각종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메말라가는 인정을 통해 삶의 어두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황만근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진 22~30; 황만근 공연 사진]

[사진 22~30; 황만근 공연 사진]

: [사진 31 ; 그리움을 위하여 웹자보]

입체낭독공연 <그리움을 위하여>

“박완서 그 이름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작품! 노년의 여유와 유머가 가득! 웃음과 감동이 드라마틱한 그녀들의 수다!”

제1회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인 <그리움을 위하여>는 박완서 작가의 마지막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의 수록 작품인데 작가 특유의 서사가 살아있으며 작가 노년의 여유와 유머가 가득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노년의 작중화자와 그녀의 사촌여동생과의 수다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란 다름 아닌 ‘그리움의 상실이며, 마음의 메마름이야말로 우리 불행의 근원이고, 그리움이야말로 축복이다’라는 주제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전의식반 우애반, 어려운 처지의 동생을 돕는다고 생각하며 그를 사실상 파출부로 부려먹어 온 내가 들려주는 사촌동생 이야기“

두 노인네가 있다. 화자인 ‘나’는 상대가 되는 사촌여동생보다 나이가 여덟 살 위인데, 제법 풍족한 노년살이를 하고 있다. 반면 사촌동생은 ‘나’의 집에 파출부식으로 일하며 돈을 얻어먹고 사는 빈핍한 노년살이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인데, 수다가 지속되면 될 수록 재미와 함께 아련한 감동이 피어난다. 일상의 남루한 지속에 반전이 생긴다. 동생이 어느 날 훌쩍 아는 민박집이 있는 남쪽 섬으로 가서 임자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점잖은 늙은 뱃사람과 사촌 여동생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청정 해역처럼 아름답다.

:

[사진 32 ~ 36 ; 그리움을 위하여 공연사진]

:

[사진 37~40 ; 자작곡 만들기 워크숍 포스터 4장]

:

[사진 41~53 ; 자작곡 워크숍 진행 사진]

:

[사진 54~57 ; 비수기 축제 포스터 4장]

:

[사진 58~90 ; 자작곡 워크숍 in 비수기 축제 사진]

..... 협력 프로그램들

:

[사진 77~83 ; 영화상영회 <Planet A>]

[사진 77]

[사진 78]

[사진 79]

[사진 80]

[사진 81]

[사진 82]

[사진 83]

:

[사진 84~94 ; 세계병역거부자의날 기념행사 <여성병역거부 선언자들과 함께하는 병역거부 이야기>]

[사진 84]

[사진 85]

[사진 86]

[사진 87]

[사진 88~90]

[사진 91]

[사진 92]

[사진 93]

[사진 94]

..... 협력 프로그램들

:

[사진 94~99 ; 흑표범 개인전 <불청객 uninvited>]

[사진 95]

[사진 96]

[사진 94 ; <불청객> 웹자보]

[사진 97]

[사진 98]

[사진 99]

..... 협력 프로그램들

:

[사진 100~104 ; 봄바람 상영회 <여기, 우리가 있다>]

[사진 101]

[사진 102]

[사진 100 ; <여기, 우리가 있다> 웹자보]

[사진 103]

[사진 104]

..... 협력 프로그램들

:

[사진 105~111 ; 김수정 개인전 <내 서식지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거야>]

[사진 106]

[사진 105; <내 서식지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거야> 웹자보]

[사진 107]

[사진 108]

[사진 109]

[사진 110]

[사진 111]

..... 협력 프로그램들

:

[사진 112 ; 영화상영회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 협력 프로그램들

:

[사진 113~118 ; 파티]

[사진 114]

[사진 115]

[사진 116]

[사진 117]

[사진 118]

수치로 본 2022 문화공간 비수기

- 4개의 자체 프로그램과 7개의 협력프로그램 등 총 13개 프로그램 진행
 - 총 44일 공간오픈 (외부공간 협력 프로그램 결합 시 50일 프로그램 진행), 19회차 프로그램 진행
 - 언론 및 매체에 총 16번 소개
 - 관객 연인원 718명, 일일(회차) 평균 15명 *소수 한정 진행 프로그램은 평균에서 제외
-
- 자체 : 비수기 영화관 4회차 진행. 연인원 125명, 평균 42명 (3회차는 '비수기 축제'에 인원표기)
 - 자체 : 입체낭독공연 2회차 진행. 연인원 47명. 평균 23.5명,
 - 자체 : 자작곡 만들기 워크숍 4회차 진행. 5명 한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5명.
/ 결과발표 공연 1회차 진행. ('비수기 축제'에 인원표기)
 - 자체 : 비수기 축제 1회차 진행. 80명.
 - 협력 : <Planet A> 영화상영회 1회차 진행. 34명.
 - 협력 : <여성병역거부 선언자들과 함께하는 병역거부 이야기> 행사 1회차 진행. 27명.
 - 협력 : <불청객> 전시 20일간 진행. 부대프로그램 포함 연인원 228명, 평균 10명
 - 협력 : 봄바람 프로젝트 <여기, 우리가 있다> 영화상영회 1회차 진행. 45명.
 - 협력 : <내 서식지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거야> 전시 15일간 진행. 연인원 48명, 평균 3.2명
 - 협력 :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영화상영회 1회차 진행. 22명.
 - 협력 : 파티 1회차 진행. 57명.

언론 보도 및 매체 소개 내역

- 비워진 감귤선과장에 예술 향기 / 한라일보

<http://m.ihalla.com/article.php?aid=1654590433727488036#linkpop>

- 제주도 감귤 선과장에서 열리는 특별한 전시 / 디자인프레스

<https://m.blog.naver.com/designpress2016/222749852747>

- 흑표범 보고 당황한 제주강정의 해군들... 개인전 '불청객' / 네이트뉴스, 다음뉴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20525n02308?hc=920227&mal=01>

- 여성 활동가의 시선으로 본 '강정' : 문화공간 비수기, 흑표범 작품전 '불청객' / 제주신문

<http://www.jeju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13>

- '비수기 영화관' 그 첫 번째 이야기 / 서귀포신문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51>

- 문화공간 비수기, 독립영화 상영회 "재춘언니 보러 와요" / 미디어제주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298>

- 강정 문화공간 '비수기, 영화 '재춘언니' 상영 /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246>

- '문화공간 비수기', 8일 '재춘언니' 무료 상영 / 제주투데이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646>

- 감귤 선과장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전시 /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070>

- 2022년 6월의 전시, 대신 다녀왔습니다 / 매거진 칸

https://m.blog.naver.com/cantavil_life/222795146024

- 강정 문화공간 비수기, 7월 영화·전시·낭독공연 진행 / 제주의소리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400>

- 7월, 문화공간 비수기의 다양한 프로그램 / 서귀포신문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43>

- 빈 감귤 선과장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 뉴제주일보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460>

전담 디자이너 후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는 시각물 제작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던 때였다. 상업적 기준에 필요한 완성도가 있었고, 내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게 견디기 힘들었고, 견딜만큼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협업을 수락한 이유는, 도시에서 항상 제주를 생각하게 되는 나의 마음 때문이었고, '너는 이미 충분하니 쉽게 쉽게 하라'는 제안자 그레이스의 조언 덕분이었다.

쉽게 하는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였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잘 끊어가며 마감을 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경험이었다.

돌아보며(사실은 중간부터 느꼈지만)아쉬운 건, 초기 기획에 맞춰 비수기 공간 요소를 활용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때 하다보니 이후엔 점점 6명의 제작자가 제작한 것 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 이게 작업에서는 가장 큰 아쉬움이다.

아무튼 여차저차 해서 이번 주말에 강정에 잠깐 갔다 왔다. 공소회장님을 오랜만에 뵈는데, "매번 포스터 만드니까 지혜가 계속 있었던 것만 같아"라고 하셨다. 이걸 누가 했는지 굳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고마웠고, 이렇게라도 마음이 전해진다니 참 기뻐다.

사실 이런 포지션의 포스터 작업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미 참여 대상자들과 커넥션이 있고, 기획/진행 인력이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패(?정확히는 흥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만족하고 고맙다고 해줘서 내가 고맙...말...사실 좀 부끄러웠다.

예전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은 그냥 나서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말 그만 두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막상 하나 하고 나니, '그냥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건가' 싫어진다.

이러나 저러나 시각 디자이너(시각물로 소통 하는 사람)로서의 직업의식 같은건 많이 희미해져서,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혹은 이어가지 않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게 데뷔작이 될지 졸업작품2가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전자여도 고맙고, 후자여도 -나의 대학 6년이 조금은 덜 무의미해진 것 같아-고맙다.

- 지혜

감사한 분들

부순정, 그린씨, 선경, 김새봄, 김춘나, 김종석, 송성호, 우드비앙, 무명서점, 김선, 준후, 미영, 카레, 선자, 희성, 민상, 주환, 성욱, 모레, 박완서, 고윤희, 지슬, 샤이니, 막장, 옥과, 희수, 남수, 나타, 기린, vovoweng, 히라노 료코, 심아정, 김미례, 에키타 유키코, 강경덕 Lamp sound, 김수정, 강리경, 정혜수, 성석제, 이재인, 서기청란, 김영표, 김범린, 김일권, 박성희, 최수영, 문창현, 김민우, Awan, 김동완, 박배일, 김수정, 김설해, 김환태, 감자, 딸기, 문정현 신부님, 핑크 삶, 이수정, 임재춘, 댄, 흑표범, 이명재(사과나무), 전솔비, 다산, 이성준, 행영, 에밀리, 지혜, 멀치, 잉, 김환태, 이하루, 은영, 섬나리, 오연재, 오지필름, 봄바람순례단, 평화바람, 직접행동 DxE,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이상의 이상, 극단 이담, 핫핑크돌핀스, 강정친구들, 강정 공간 (),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인디그라운드, 한국예술인복지재단